

4·3피해자 1000명 무죄 선고 “억울함 풀어준 것 같아 기뻐”

이임하는 장찬수 4·3전담판사

제주4·3 재심 재판이 열리는 법정
은 4·3증인 본풀이장을 방불케한
다. 유죄를 입증할 증거조차 없는
4·3 재심 사건은 변호인 최종 의견,
검찰 구형, 선고 절차만 거치면 폐
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지만 재판
은 매년 한 시간을 훌쩍 넘겼다. 재
판부가 유죄 한 명, 한 명에게 발인
기회를 주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
했기 때문이다.

지역을 더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
려도,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해도
재판부는 “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
말 다 하시라”고 다독였다. “70여
년 세월동안 켜켜이 쌓인 한을 풀
어놓을 가장 공적인 자리가 법정입
니다. 말씀이라도 하시면 응어리가
조금이라도 풀어지지 않을까하는
생각에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
다.” 4·3전담 재판부를 이끌어 온
장찬수 판사가 오는 20일 광주지법
을 자리를 옮긴다.

2020년 제주에 부임해 4·3 전담
재판부 초대 재판장을 맡은 그는
그동안 4·3피해자 1000여명에게 무
죄를 선고했다. 4·3을 이해하려 4·3
진상조사보고서와 4·3서적을 완독
하고, 4·3 참상을 그린 소설책 ‘순
이삼촌’을 들고 법정에 들어섰던
장 판사는 “4·3 재심 재판은 민주
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노력의
결실”이라며 “그 연대의 정신을 잃
지 말았으면 한다”고 밝혔다.

다음은 7일 제주지법에서 진행한
장 판사와의 일문일답 인터뷰.

▶ 그동안의 소회는=제주에 부임
했을 때 4·3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
부족했다. 그러다보니 300명이 넘
는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
청구가 접수됐을 때 막막했다. 그
래서 하나하나 관련 자료를 찾아봤



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장찬수 제주4·3사건 전담 판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. 이상국기자

다. 또 법정에서 유죄의 가슴 아픈
사연을 접했다. 내가 4·3 유죄이었
으면 ‘나는 어떻게 살았을까’ 하는
생각이 많이 들었다. 앞으로도 명
예회복이 필요한 4·3 피해자가
3000명이 넘는데 더이상 재심 업무
를 할 수 없어 아쉽다.

▶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=유죄
들 증인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난다.
그중에서도 2021년 300명이 넘는
군사재판 수형인에게 무죄를 선고
한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. 오전
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이어
서 재판을 했다. 수많은 피해자들
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점에서 가
장 기억에 남는다.

▶ 4·3재심 사건을 맡으며 어려웠
던 것은=우선 당시 재판 기록이 온
전히 보존돼 있지 않아 세세한 쟁
점을 판단하기 어려웠다. 재심은
이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아니
라 4·3특별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
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. 그런
데 아직도 4·3을 이념적으로 바라
보는 시각이 있어 이를 극복하는
것이 어려웠다. >> 2면으로 계속

청년정책·15분도시 인프라 재원 ‘난제’

민선 8기 도정 관련 정책 4년간 4000억원대 필요
도, 국세 이양·균특회계 개선 등 재원 확보 총력

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회복
과 15분 도시 조성, 제주형 청년보
장제 실시 등 민선 8기 제주도정
신규 정책 추진으로 재정 수요가
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
원확보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.

청년의 사회 진입과 학업·주거·
사회활동을 촘촘히 지원하는 제주
형 청년보장제 소요 예산은 2022년
부터 2026년까지 총 3622억원이다.

15분 도시 조성은 올해 기본구상
수립후 2024~2025년 법적근거 마련
및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. 4년간
400억원이 투입된다.

이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신규

정책 추진에 따른 신 재원 확보를
위해 국세이양 강화, 균형발전 특
별회계 개선, 제주특별세 신설을
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에 난항
을 겪고 있다.

국세 이양은 지난 2006년 7월 1
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지속적
으로 요구를 했으나 15년동안 제주
도로 이양된 국세는 전무하다.

국세 징수는 전국 통일이 필요한
국가 고유 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
세로 전환해 줄 경우 1국 1조세 체
제 근간이 흔들린다는 명목 등으로
이양이 불허되고 있다.

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정

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세율과 세
액의 가감 조정 권한만 이양했을
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정부
에 과세권은 넘겨 주지 않고 있다.

새정부 출범에도 균형발전 특별
회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.

총 균특 보조금 가운데 제주의
비중은 2008년 6.9%에서 2019년 4.1
%로 감소했다. 2019년 전국 총계 8
조원중 제주는 3276억원에 그쳤다.

제주특별세 신설은 현재 추진중
인 환경보전기여금과 중복되고 다
른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진전을
보지 못하고 있다.

이처럼 국세이양과 균형발전 특
별회계 개선, 제주특별세 신설에
어려움이 따르자 제주도는 제주특
특별회계 포괄적 권한 이양에 자치재정
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.

포괄적 권한 이양은 제주특별법
에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개입
해야 하는 권한만을 규정하고 나머
지 사무에 대해서는 법률단위로 종
합·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다.

제주도 관계자는 “환경보전기여
금 같은 부담금 신설은 국가전속권
한으로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설치
하는데 법적 한계가 있다”며 “제주
특별세 신설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
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

또 다른 관계자는 “정부에서 제
주에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포괄
적인 이양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
고 있다”면서 “자치재정분야도 포
괄적 권한 이양에 같이 포함시키는
것으로 추진하고 있다. 6월에 나오
는 용역에 구체적인 안이 담길 것”
이라고 설명했다. >> 2면으로 계속



봄잠자 파종하는 농촌 포근한 날씨를 보인 7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서 농민들이 유채
꽃이 핀 밭에 봄잠자를 파종하고 있다. 강희만기자

‘변종 롬카페’ 불법영업 적발... 4면 / 김치찌개 3000원 사랑... 5면

알림

제9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

5.4(목)~5.7(일) 대구 엑스코

한라일보는 전국 지역 대표 신문사와 공동으로 각 지역의 대표 특산물의 판로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해 제9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를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개최합니다.

본 박람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정 농축수산물, 전통주, 발효식품, 기능성식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며 식품 외에도 그 지역의 문화 및 관광 등의 기타 콘텐츠,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통해 박람회를 찾은 소비자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에 있습니다. 아울러 식품관련 바이어를 특별 초청해 각 지역의 생산자와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판로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에게는 지역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신뢰를 갖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.

전국 농축수산물 식품관련 업체 약 300개 업체가 참여하는 본 박람회의 참여 신청은 2월 1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라일보 홈페이지(<http://www.ihalla.com/popup/foodexpo.html>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립니다.

신청기간 2월 8일(수) ~ 2월 17일(금)

신청대상 도내 농·축·수산물 식품제조기업체로 1년 이상 운영한 업체(법인, 개인)

신청방법 홈페이지(<http://www.ihalla.com/popup/foodexpo.html>) 신청서 다운로드 및 방문 접수(2월 17일 18시 도착분에 한함)
*우편발송: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산업과

주최 한라일보 외 전국 지역 대표 신문사
주관 (주)한국전산산업원
후원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
문의 도 식품산업과 ☎ 064)710-3172 / 한라일보사 ☎ 064)750-2540

제24회 한림공원

매화 축제

Ume Flower Festival

2.11(토)~3.12(일)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(63011) Tel,064)796-0001 Fax,064)796-0006
www.hallimpark.com www.instagram.com/jeju_hallimpark 한림공원